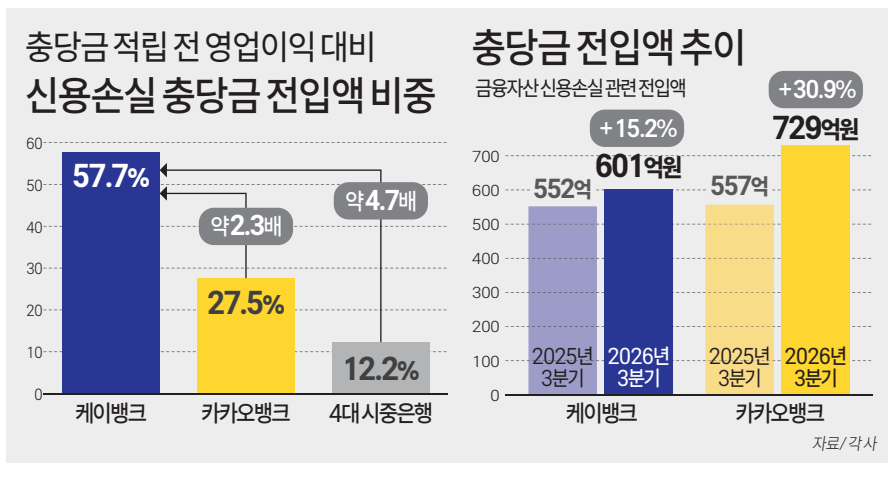
대출 늘리는 인뱅, 손실충당금 부담↑… 시중은행의 4.7배

3분기 신용손실충당금 전입액 비중
카카오뱅크, 27.5%로 상승 했지만
연체율 하락 등 건전성 지표 개선
케이뱅크 57.7%, 자산건전성 악화
3분기 연체율 전년비 0.06%p 상승



인터넷전문은행들이 개인사업자와 중저신용자를 중심으로 대출 영업을 확대하면서 충당금 부담도 커지고 있다. 충당금 적립 전 영업이익에서 신용손실충당금 전입액이 차지하는 비중은 시중은행의 최대 5배에 육박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16일 금융권에 따르면 올해 3분기 충당금 적립 전 영업이익 대비 신용손실충당금 전입액 비중은 카카오뱅크 27.5%, 케이뱅크 57.7%로 집계됐다. 이는 4대 시중은행(KB국민·신한·하나·우리은행)의 평균인 12.2%와 비교해 각각 약 2.3배, 4.7배에 달하는 수준이다.

인터넷은행들이 대출 자산을 빠르게 늘리는 과정에서 신용손실에 대비해 쌓아야 하는 충당금 규모도 확대되면서 수익성에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분석이다.

카카오뱅크의 올해 3분기 금융자산 신용손실충당금 전입액은 729억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557억원)보다 30.9% 증가했다. 전 분기(568억원)와 비교해도 약 28% 늘었다.

같은 기간 케이뱅크의 금융자산 신용손실 관련 전입액은 601억원으로 전년 동기(521억원) 대비 15.2%, 전 분기(514억원) 대비 16.9% 증가했다.

특히 충당금 부담이 영업이익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높은 수준을 나타냈다.

카카오뱅크의 3분기 충당금 차감 전 영업이익은 2647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약 28% 증가했다. 그러나 같은 기간 충당금 전입액 증가율은 30.9%로 이익 증가 속도를 웃돌았다.

이에 따라 충당금 차감 전 영업이익 대비 전입액 비중은 지난해 3분기 26.9%에서 올해 27.5%로 0.6%포인트(p) 상승했다. 전 분기(22.7%)와 비교하면 4.8%p 높아졌다.

케이뱅크는 해당 비중이 57.7%에 달해 충당금 적립 부담이 더 두드러졌다. 충당금 차감 전 영업이익의 절반 이상에 해당하는 금액이 신용손실비용으로 반영된 셈이다.

다만 충당금 증가가 반드시 기존 대출의 부실 악화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신규 대출이 늘어날 경우 실제 연체가 발생하지 않더라도 향후 발생할 수 있는 손실을 예상해 충당금을 적립해야 하기 때문이다.

실제 카카오뱅크는 충당금 전입액이 크게 늘었지만 자산건전성 지표는 개선됐다.

카카오뱅크의 전체 연체율은 지난해 3분기 0.53%에서 올해 3분기 0.49%로 0.04%p 하락했다. 고정이하여신비율도 같은 기간 0.55%에서 0.53%로 낮아졌다.

반면 개인사업자대출 잔액은 지난해 3분기 약 2조8000억원에서 올해 3분기 4조원을 넘어서며 빠르게 증가했다. 대출 자산 확대에 따른 기대신용손실 반영이 충당금 증가에 일부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이 있다는 분석이다.

케이뱅크는 대출 확대와 함께 자산건전성 지표도 악화했다.

케이뱅크의 전체 연체율은 지난해 3분기 0.56%에서 올해 3분기 0.62%로 0.06%p 상승했다. 고정이하여신비율 역시 같은 기간 0.54%에서 0.60%로 높아졌다.

두 은행의 신용비용 부담은 누적 대손비용률에서도 차이를 보였다.

카카오뱅크의 올해 3분기 누적 대손비용률은 0.54%로 전년 동기 대비 1bp(1bp=0.01%포인트) 상승했다.

케이뱅크는 1.12%로 전년 동기보다 3bp 낮아졌지만 여전히 카카오뱅크의 두 배를 웃도는 수준이다.

금융권에서는 인터넷은행의 대출 성장세가 지속되더라도 충당금 부담을 얼마나 안정적으로 관리하느냐에 따라 실질적인 수익성 개선 여부가 달라질 것으로 보고 있다.

특히 개인사업자와 중저신용자 대출 비중이 높은 인터넷은행의 특성상 신규 여신 확대에 따른 충당금 적립 부담과 기존 차주의 신용위험 변화를 구분해 살펴볼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다.

금융권 관계자는 "신규 여신 확대에 따른 충당금 적립과 기존 차주의 신용위험 변화, 부실채권(NPL) 매각 등의 추이가 앞으로 인터넷은행 실적의 질을 가를 핵심 변수가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나유리 기자

yul115@metroseoul.co.kr

NH농협금융, 올해 포용금융 3.4조 공급

2030년까지 총 15.3조 공급 계획
연내 NH미소금융재단 설립 예정


NH농협금융 사옥. /NH농협금융

NH농협금융지주는 올해 10월 말까지 취약계층과 소상공인에게 총 3조3784억원의 포용금융을 공급했다고 16일 밝혔다. 자금 공급과 이자 부담 완화, 대출심사 개선, 연체채무자 재기 지원을 추진하고 연내 NH미소금융재단을 설립할 계획이다.

NH농협금융은 오는 2030년까지 5년간 취약계층과 소상공인에게 총 15조3000억원을 공급한다는 계획 아래 올해 10월 말까지 농협은행 새희망홀씨대출 5708억원, 지역신용보증재단 보증부대출 2조2595억원 등을 지원했다.

계열사도 자금 공급에 참여하고 있다. NH저축은행은 중·저신용자를 위한 'NH저축 중금리 생활안정대출'을 통해 10월 말까지 280억원을 공급했다. NH농협캐피탈은 청년·사회초년생 대상 '2030 청년 안아드림' 대출로 같은 기간 92억원을 지원했다.

지역 중심의 지원을 확대하기 위한 NH미소금융재단 설립도 추진한다. 연내 설립을 마치고 2027년 1분기 사업을 시작하는 것이 목표다. 미소금융은 제도권 금융 이용이 어려운 저신용·저소득층에게 담보나 보증 없이 자금을 지원하는 서민금융 진흥원 연계사업이다. NH농협금융은 청년 창업농과 귀촌 청년 등을 위한 맞춤형 상품도 설계할 계획이다.

이자 부담 완화도 병행하고 있다. NH농협은행은 올해 1월 신설한 'NH포용금융 우대금리'를 통해 평균 0.24%포인트(p)의 금리우대를 적용, 10월 말까지 536억원의 이자 부담을 줄였다고 설명했다. NH저축은행은 3월부터 신규 취급하는 햇살론 금리를 종전보다 1.0%포인트 낮춰 적용하고 있다.

성실상환 고객을 위한 계열사 간 대환대출은 연내 출시를 목표로 준비 중이다. 저축은행·캐피탈 대출을 성실하게 상환해 신용을 쌓은 고객이 그룹 내에서 더 낮은 금리의 농협은행 대출로 갈아탈 수 있도록 하는 방식이다.

금융거래 정보가 부족한 고객을 위한 심사 방식도 개선했다. NH농협은행은 지난달 생활·소비데이터 등 비금융정보를 활용하는 '올원브릿지모형'을 대출심사에 도입했다. NH저축은행은 대안신용평가 점수를 일부 소액 신용대출 심사에 활용하고, 평가 결과에 따라 최대 1.0%포인트의 우대금리를 제공하고 있다.

연체채무자의 재기 지원도 추진한다. NH농협은행은 범농협 차원의 9276억원 규모 장기 연체채무자 재기지원 계획에 참여해 10월 말까지 개인·개인사업자 등의 시효완성 채권 3431억원을 소각했다.

NH농협캐피탈은 일시적 자금난으로 연체 우려가 있는 고객의 원금 상환을 최대 6개월 미루는 자체 프리워크아웃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올해 10월 말까지 882건, 401억원 규모 대출의 상환을 유예했다.

이찬우 NH농협금융지주 회장은 "포용금융 지원은 자금 공급에서 끝나지 않고, 갚고 다시 일어서는 과정까지 이어져야 한다"고 말했다. /김주형 기자 gh471@

차기 은행연합회장 후보자 5파전 압축

회추위, 23일 최종후보 1명 선정

윤종원 전 IBK기업은행장이 차기 은행연합회장 후보직을 고사하면서 회장 선출 구도가 5파전으로 재편됐다.

16일 은행연합회에 따르면 윤 전 행장은 차기 은행연합회장 후보직을 고사했다. 지난 13일 회장후보추천위원회(회추위)가 선정한 1차 후보군에 이름을 올린 지 사흘 만이다. 구체적인 고사 배경은 알려지지 않았다.

앞서 은행연합회 회추위는 지난 13일 2차 회의를 열고 김한조 전 외환은행장, 박종복 전 SC제일은행장, 손병환 전 NH농협금융지주 회장, 윤종규 전 KB금융지주 회장, 윤종원 전 IBK기업은행장, 이원덕 전 우리은행장 등 6명을 후보군으로 선정했다.

윤 전 행장이 후보직을 고사하면서 남은 후보는 모두 민간 금융권 출신으로 구성됐다. 윤 전 행장은 재정경제부 출신 관료로, 후보군 가운데 유일한 경제관료 출신 인사였다.

이에 따라 차기 은행연합회장 선출은 김한조·박종복·손병환·윤종규·이원덕 등 5명의 경쟁으로 좁혀졌다.

은행연합회 회추위는 오는 23일 회의를 열고 남은 후보들을 대상으로 차기 회장 최종 후보 1명을 선정할 예정이다. /나유리 기자

"금융보안원 해킹, 수습·재발방지 총력"

신진창 금융위 부위원장


신진창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이 금융보안원 현장점검에서 발언하고 있다. /금융위원회

신진창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이 금융감독원 수석부원장 등 관계기관 간부들과 함께 금융보안원을 방문하고 최근 발생한 침해사고의 원인 조사와 근본적인 재발방지 대책 마련을 주문했다.

금융위는 신진창 부위원장 주재로 16일 오전 9시 30분 서울 여의도 금융보안원 사무소에서 '금융보안원 해킹사고 재발방지 현장점검'을 실시했다. 이날 현장점검에는 금융위 디지털금융정책관, 금감원 수석부원장 및 디지털금융총괄국장, 박상원 금융보안원장 등이 참석했다.

이번 점검은 인공지능(AI) 기술의 급속한 발전으로 사이버 위협이 심화되고 금융권 침해사고가 잇따르는 가운데, 지난 9일 금융보안원 내부에서 침해사고가 발생하면서 엄중한 상황인식 하에 진행됐다.

이날 신진창 부위원장은 금융권 침해사고 대응 전담 기관인 금융보안원에서 사고가 발생한 점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명했다. 이어 사고 발생 경위와 원인에 대한 빠짐없는 조사를 지시하는 한편, IT 시스템과 업무체계 전반의 신속한 재점검과 소비자 피해 방지에 만전을 기할 것을 주문했다.

신 부위원장은 "금융보안원은 그 어느 기관보다도 스스로 가장 높은 수준의 보안역량과 책임감을 갖춰 금융권의 모범이 되어야 한다"며 "이번 사고를 교훈 삼아 조직 운영, 업무체계, IT 시스템 등 업무 전반을 쇄신하고 국민 신뢰를 회복할 수 있는 재발방지 대책을 조속히 마련해야 한다"라고 말했다. /안승진 기자 asj1231@

토스뱅크, 스테이블코인 해외송금 검증

솔라나·체이널리시스와 공동 추진

토스뱅크가 블록체인 기반 스테이블코인을 활용한 해외송금 기술 검증에 성공했다. 기존 국제은행간통신협회(SWIFT) 기반 해외송금이 평균 1~3영업일 소요되는 것과 달리 수십 초 이내 송금이 가능한 것으로 확인됐다.

토스뱅크는 솔라나 재단, 블록체인 분석기업 체이널리시스와 공동 추진한 스테이블코인 기반 해외송금 개념검증(PoC) 1단계를 완료했다고 16일 밝혔다.

이번 검증은 지난 6월 토스뱅크와 솔라나 재단이 체결한 '블록체인 기반 차세대 금융 인프라 협력' 업무협약(MOU)에 따른 첫 공동 프로젝트다. 국내 인터넷전문은행이 솔라나 네트워크를 활용해 해외송금 모델을 검증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토스뱅크는 솔라나 블록체인 네트워크와 달러 스테이블코인인 USD코인(USDC)을 활용해 고객의 송금 요청부터 해외 수취인 지갑에 자금이 도달하기까지 전 과정을 검증했다. 검증 결과 송금 요청부터 수취인 지갑에 USDC가 도달하기까지 최종 확정 기준 수십 초 이내에 처리가 완료됐다. 여러 건의 송금이 동시에 발생하는 상황에서도 네트워크 지연 없이 안정적인 처리 성능을 확보한 것으로 나타났다.

자금세탁방지(AML) 등 금융규제 대응 체계도 점검했다. 토스뱅크는 체이널리시스와 협력해 미국 해외자산통제국(OFAC) 제재 대상 및 고위험 지갑 주소에 대한 자동 차단 기능을 검증했다. /나유리 기자